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30~7/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현실은 영원이다 : 지광스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	지광스님	위로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7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운허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공과 윤리 : 반야 중관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성철	오타쿠
5	프리스틴 마인드 :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최첨 명상 안내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카르마 알면 인생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너무 늦기전에 들어야할 카르마 강의

최준식 지음
김영사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하루하루 풀리지 않는 미움과 갈등으로 불행하다면, 또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괴롭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슬픔에 빠졌다면, 인생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카르마에 그 해법이 있다. 삶과 죽음을 넘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인생서 풀어야 할 과제를 깨닫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카르마의 증거와 원리, 이유와 작동법, 전생과 내생의 비밀까지. 종교학자 최준식 교수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인생 강의 3탄이다. 카르마를 알면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인생의 쳇바퀴를 탈출하는 최선의 방책은 카르마를 알고 해소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카르마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한 '앎'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하교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갑자기 덮친 자동차 사고로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 장애를 타고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사람… 등등.

우리는 뉴스에서, 또 주변서 종종 원인모를 고통과 시련을 마주하곤 한다. 왜 누군가에게는 불운이 닥치고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따를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을까. 이 책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가 이 물음에 답한다.

저자 최준식 교수는 40년 넘게 한국인의 삶과 죽음, 문화를 연구한 한국학자이자 종교학자, 죽음학 권위자로, 한국죽음학회를 창설해 죽음학 불모지였던 국내서 죽음학 연구를 선도했다.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임종학 강의〉 등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죽음 공부를 전파하며 많은 독자와 소통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삶과 죽음을 넘어 진정한 나를 완성하는 법칙을 담은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를 펴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인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깨닫는 공부로 우리를 안내한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카르마(karm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카르마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카르마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이 지은 카르마와 그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카르마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르마 법칙은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속에 영합하면서 재물이나 지위를 성취하는 것으로 행복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진실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풀리지 않는 미움과 갈등으로 불행하다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장애로 괴롭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슬픔에 빠졌다면,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카르마에 그 해법이 있다. 카르마의 증거와 원리, 이유와 작동법, 전

행복과 성장 인도하는 카르마 법칙
삶과 죽음을 넘어 진정한 나를 완성
저자, "카르마법칙 항상 내 편"강조

생과 내생의 비밀까지. 문답을 주고받듯 편안하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 주변을 도도하게 흐르는 카르마 법칙을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악행을 거듭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저 사람은 언젠가 업보를 받을 거야"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業)은 미래에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카르마를 뜻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전부 업이다. 보(報)는 업에서 비롯된 결과(과보)이다. 그러므로 "과보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옳다. 카르마가 원인이 되어 과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카르마 법칙의 요체다.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은 모두 과거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좋은 카르마를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카르마를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카르마 법칙이 징벌을 주는 법칙은 아니다. 당사자에게 그가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다. 자신이 가지고 온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르마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나의 카르마를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르마 법칙은 내가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좋지 않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카르마 법칙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향해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카르마 법칙은 항상 내 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든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생의 과제를 알아내어 하루라도 빨리 카르마 법칙을 이해해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카르마에 관한 궁금증

▲카르마 법칙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일상 의식으로 카르마 법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명상을 통해 의식을 평온하게 침잠시켜야 한다. 이러한 명상 전통을 크게 발달시킨 힌두교와 불교가 카르마 법칙을 설파하는 이유다. 현대에는 서양에서 카르마 법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면과 환생에 관한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는 인간의 삶에 카르마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나를 둘러싼 인연 어떻게 이해할까

이전 생에 누군가와 카르마를 쌓았다면 그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 이번 생에 가까운 사이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예컨대 자신이 괴롭히고 착취했던 사람을 현생의 부모로 만날 수 있다. 되갚음을 받아 교훈을 얻으라는 카르마 법칙의 안배다. 이때 양자의 카르마가 지속되어 내생에 다시 만나 증오의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모가 통찰력을 발휘해 전생의 원한을 용서하고 자식을 잘 돌본다면 둘 사이의 카르마는 이번 생에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 정해졌다면 현실 개선할 수 있을까

현생의 고통은 분명 전생에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환란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옳은 길, 정도(正道)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카르마 법칙은 결정론도, 숙명론도 아니다. 카르마 법칙은 '도덕적인' 인과론이다.

▲나만의 천직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직업도 전생과 관계가 있을까.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이전 생의 직업을 이번 생에도 택한다고 한다. 평생 해온 일에 관한 정보가 의식에 저장되어 다음 생으로 전달되므로 비슷한 직업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천직을 찾는 것은 카르마 해소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어떤 의심도 들지 않는가?"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직업이 천직인지 점검하고 인생 계획을 새로이 세워보길 권한다.

성철 스님 생애와 가르침 되살려낸 소설



소설 성철 1, 2권
백금남 지음/마음서재 펴냄/1만 5천원



10년 동구불출, 8년의 장좌불와
내마음 '깨침' 공부가 수행 핵심

〈소설 성철〉은 불교 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백금남 작가〈사진〉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공들여 완성한 작품이다. 엄격한 유가에서 자란 성철 스님이 어떻게 불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스승인 동산 스님을 만나 어떻게 깨침의 길로 나아갔는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속가의 어머니, 아내와 딸마저 출가해 스님이 된 비밀스러운 가족사도 함께 담겨 있어 그 깊이를 더한다. 이 소설을 읽으면 누구라도 성철이 일개 구도자가 아닌, 이 시대의 살아 있는 부처였음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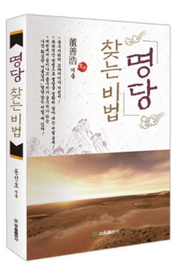
백금남 작가는 칠십 평생 마지막 작품이라는 일념으로 이 소설을 썼다. 대개의 인물 소설은 객관적이고 정론화된 사실에 근거하지만 소설적 개연성을 얻기 위해 주관적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들다. 더구나 성철 스님의 수행 과정은 매우 치열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일대기를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는 매우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성철 스님의 수행 정신을 그만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추적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비롯해 아내와 딸마저 출가한 애절한 가족사를 알고 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당대에 수행자로 함께했던 만공 탄허 동산 스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선승의 살아 있는 선사상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두 권에 걸쳐 방대한 소설을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다. 엄격한 수행을 통해 얻은 전생 · 현생 · 내생의 삼생관들이 온전히 담겨 있어 오늘날 수행자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울림이 매우 클 것이다.

진리가 말이 되면 거짓이 되고, 그 거짓은 중생에게 진리가 된다. 거짓말쟁이 중생을 구하러 쇠산지옥으로 간 부처는 누가 구할 것인가. 삼세를 넘어 취모검을 들고 지옥으로 갈 이는 누가 될 것인가. 중생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다. 지옥을 천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어림도 없다. 말이 된 진리가 취모검에 베이지 않고는 모든 것이 한낱 수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부처의 세계를 설해도 중생은 모른다. 그렇다고 부처의 세계가 변했을 리 없다.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소설에서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온 도리를 알겠느냐? 1 2 3 4 5 6 7 이여."

이처럼 성철 스님이 휘두른 지혜의 불칼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행자들에게 크고 깊다. 지금 그는 가고 없다. 그러나 그 수행 정신은 온전히 살아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죄 많은 세상에서 취모검을 휘두르며 지옥까지 끌어안아 깨침의 세계로 가고자 했던 한 구도 수행자의 삶이다. 우리는 소설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다. 성철 스님의 취모검이 번뇌와 인과를 끊는 단순한 칼이 아님을, 오로지 중생을 향했던 자비심의 칼임을 깊이 깨우치게 된다. 김주일 기자



명당 찾는 비법
董善浩 著 / 488쪽 / 정가 30,000원

화제의 신간

★풍수지리의 교과서 이자 지침서!
• 중국에서 전래된 고전적(古典的)인 풍수지리를 지양(止揚)한 과학적으로 정립된 현대적(現代的)인 풍수지리서의 교과서(教科書)이자 지침서(指針書)이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명당을 정확히 찾아 내는 비법!
• 산과 들 및 건물이 있는 현장(現場)에서 명당자리를 찾아 내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도(地圖)와 사진 등에 의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모든 명당자리를 찾아 내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 명당자리의 대소(大小)와 수맥(水脈) 여부(與否)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비법(秘法)을 공개한다.

★개천에서 용(龍)이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명당 찾는 비법" 안에 있다!
• 명당 찾는 비법(秘法)에 의해 한 장소에서 최소 32개에서 최대 1,184개 이상의 대명당(大明堂) 자리를 찾아 활용(活用)한다면 대대손손(代代孫孫) 지구촌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人才)들이 반드시 배출된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임시종정 선임 건 소송관련 사과문

– 사건 2021마5232 임시종정선임 –

귀의 삼보하옵고,

– 아래 발신인 배재식,이춘근이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위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수신인(대한불교원효종 전 종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발신인은 수신인을 상대로 위 사건 관련 항고장에 항고인(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었던 승려입니다.

– 발신인은 위 사건 관련하여 감로사(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상운(하영기)주지스님이 대구고등법원2020라388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고인(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고장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주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사건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참가인으로 위조하여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된 것을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알게 되었습니다.

– 발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으로 동의나 승낙을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위조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위 하영기(상운)를 상대로 2021년 6월 22일 고성경찰서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감로사 주지스님은 임시종정선임자 추천 동의서 서명자 명단과 종도대회동의서 서명자명단도 위조하여 이 사건에 제출하였기 위 고소장을 제출 할 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발신인은 위 사건 보조참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법원판결 후 알게 되어 대한불교원효종 전종도님과 임시종정님께 물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참회합니다. 나모불 ~

2021년 6월 26일

발 신 인
이춘근 (법명 : 법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4길11(성불사)
배재식 (법명 : 보문) 마산시 회원구 석전북5길15번지(축지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임시종정 귀중